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이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면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Blos, 1979).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는 유아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 과정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정서적 성숙의 척도가 된다(Kear, 1978).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아정체감이나 개성을 잃지 않고 타인과 정서적인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Walsh 1993),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아경계가 분명치 않고 타인의 진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기 어렵다(윤희진, 2006).

자아분화수준은 가족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데, 가족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김순재, 1996). 자녀와 미분화된 부모들은 자녀의 실패에 대해 자신이 더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자녀를 통해 대리성취감을 얻고자 하여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거나 자녀양육에 쏟은 노력을 보상받고자 한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청소년 자녀에게도 정신적 압박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장재홍, 2000). 부모가 부부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고 미분화된 행동을 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워진다(Bloom, 1980; 김순재, 1996에서 재인용).

한편 인간은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Combs & Sngy, 1959),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출생 순위, 형제 성 구성, 형제간 연령차를 포함하는 형제지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별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형제지위 변인들 중에서도 출생 순위가 자아분화를 얼마나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분화

보웬은 필연적인 생물학적 현상으로서 우리의 삶에 만성불안(Chronic anxiety)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고 연합에 대한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만성불안이 증가하게 되며, 만성불안의 감소는 오직 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이 가족체계 이론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분화는 정신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문자 외, 2007) Bowen에게 있어 자아분화는 자율적이며 자기 지시적인 방법으로 과거 출생가족인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단절 없이 정서적인 성숙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경자, 2004; Bowen, 1982).

인간의 자아는 진짜 자아(solid self, basic self)와 가짜 자아(Pseudo self)로 나타나는데(김용태, 2001),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진짜 자아 부분이

커지며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짜 자아 부분이 커진다. 진짜 자아란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바뀌지 않으며 원칙이나 원리 등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성 있는 자아를 의미한다. 진짜 자아가 발달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 반면 가짜 자아는 관계 속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바뀌는 자아, 감정에 주관되는 자아이고(Bowen, 1985) 불안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김용태 외, 1996). 가짜 자아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동의와 사랑을 얻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며, 사고보다 느낌에 기초해서 행동한다(Bowen, 1985).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내부적 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격렬한 감정만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체로 타인과 융합되어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를 단아버린다(Kerr & Bowen, 1988).

형제지위와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출생 순위

출생 순위는 형제 성 구성과 연령차 등과 더불어 형제지위(sibling status)를 구성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형제간 능력, 권위,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 양육행동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비공유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Newman, 1994).

출생 순위에 따른 인성의 차이는 크게 서로 다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형제 간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볼 있는데, 본 연구는 둘 중 자아분화와 보다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

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출생 순위와 관련하여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용가능한 부모의 자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형제들간의 경쟁, 부모의 자녀를 돌보는 경험과 기술의 차이 등이 있다(Jacobs & Moss, 1976).

첫째아는 육아경험이 없는 부모에게 처음으로 자녀를 갖는 행복감을 주므로 부모는 첫째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기 쉽다. 반면 둘째 자녀를 키울 때는 첫째 자녀를 키울 때의 흥분과 열정은 사라진 반면, 자녀양육의 경험과 지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되나 다소 소홀한 태도를 취하기 쉽다(유안진, 1983).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맏이에게 덜 허용적이며 통제적이고, 긴장을 덜 풀고 더 엄격하며(Dunn & Plomin, 1986), 보다 엄격한 훈육과 성취압력을 주고, 애정표현과 적극적인 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1980; Sulloway, 1996; 고애자, 1988; 서명화, 1994; 조정자, 2000). 또한 맏이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시(Stout, 1960)와 복잡한 설명(Rothbart, 1971)을 들으며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Kilbride, 1971; 상미현, 1998에서 재인용)도 있다.

그러나 출생 순위와 관련하여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Abramovitch 등(1982)은 부모가 발달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더 온정적이고 보호적이며 양육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자 형제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3자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에서 어머니는 동생에게 더 반응적이고 개입적이었으며(Bryant & Crockenberg, 1980),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는 맏이보다 동생을 더 선호하고(Brody

et al., 1987) 동생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n & Kendrick, 1981). 이처럼 출생 순위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지만, 아동의 출생 순위가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형제간 성 구성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서로 달라지지만, 더 가족맥락적인 차원에서 출생 순위와 형제성별을 함께 고려한 형제의 성 구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Jacobs와 Moss(1976)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둘째보다 맏이에게 사회적, 애정적, 보호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지만 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형제의 성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 맏이와 둘째가 동성의 형제일 경우 어머니의 행동 차이는 보다 컸으며, 둘째가 맏이와 성이 다르거나 남아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덜하였다. 이는 성별의 차이가 어머니에게 일종의 새로움을 제공해주어서 관심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는 이성의 자녀를 더 관대하게 대한다는 연구결과(Rothbart & Macoby, 1966)가 있는데, 맏이가 남아이더라도 둘째 남아에게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이 덜 감소하는 것은 여성인 어머니에게 남자 아동이 그 자체로 신선감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luger(2011)는 부모의 대부분이 맏이를 선호하지만 동시에 이성 자녀를 편애하는 경향도 있으며 어머니는 장남을, 아버지는 막내딸을 가장 아낀다는 통념을 확인시켜 주었다.

형제를 비교하여 자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탈동일시(deidentification)는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동성 형제간에서 탈동일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들(Shachter, Shore, Feldman-Rotman, Marquis, & Campbell, 1976; Schachter, Gilutz, Shore, & Adler, 1978; 상미현, 1998에서 재인용)은 동성 형제간에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반면, Corter와 동료들(1983)의 연구에서는 형제가 동성 간일 때 부모가 더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대우를 보였으며, 어머니가 자매를 대하는 태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Bryant & Crockenberg, 1980).

아동의 성과 출생 순위, 형제의 성별을 함께 고려하여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상미현, 1998), 남아-여아의 성 구성에서 오빠의 경우 어머니의 편애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남아-여아 성 구성에서 여아가 맏이일 때는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차별행동이 형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출생 순위와 형제 성 구성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애정적 차별행동과 통제적 차별행동에서 출생 순위의 효과는 남아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형제 성 구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이 불일치하게 나타남을 볼 때, 형제 성 구성이 단독으로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또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부모의 양육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형제간 연령차

출생 순위와 형제 성 구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형제간의 연령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출생 순위와 형제의 성별이

같더라도 형제와 연령차가 많을 경우와 적은 경우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달라진다.

Breland(1974)는 형제 간에 연령차가 커서 “별개로(in isolation)” 자란 형제들은 연령차가 적은 형제들에 비해 언어적, 비언어적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출생 순위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Kidwell (1981)은 형제간 연령차가 클 때, 예를 들어 둘째와 셋째의 나이 차이가 충분히 클 때(6세 이상) 가족환경은 매우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경우 셋째는 만이가 외동으로써 점유했던 것과 비슷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녀는 남-남 형제로 이루어진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출생 순위의 영향을 강조하며 형제 연령차의 곡선적(curvilinear)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형제의 연령차는 부모의 합리성, 지지, 비차별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영향을 주었는데, 연령차가 1년 미만이거나 5년 이상일 때 아동은 부모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그 사이의 터울은 보다 부정적인 지각을 유발하였다. 이 곡선적 모델은 가족 내의 지위에도 적용되어, 모든 형제 간의 나이차가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일 때 만이와 셋째는 둘째에 비해 부모를 합리적, 지지적이고 덜 차별적이라고 지각하였다.

Kidwell(1981)은 연령차를 통제하였을 때 출생 순위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사라짐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형제간 연령차가 5세일 경우, 다른 두 형제들로부터 유사한 요구가 감소함으로써 부모의 주의와 자원을 최적으로 제공받는 환경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령차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두 형제들이 매우 유사한 필요를 갖기 때문에 부모가 두 형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므로 부모의 필요한 주의와 자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최소화되어 아

동들이 더 호의적인 응답을 하였다. 한편 형제간 연령차가 1세에서 5세 사이일 때 형제들의 요구는 중복되지만 서로 달라서 부모의 주의와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므로, 이 연령차는 필수적 자원의 분배에 대한 형제간의 지각 차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차가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해 연령차가 가장 적은 집단과 연령차가 많은 집단이 부모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Lewis & Kreitzberg, 1979). 한편 형제간의 연령차가 클수록 발달수준의 차이로 인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Dunn과 Plomin의 연구(1986)에서 형제가 같은 연령이었을 때 어머니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지만, 한 아동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적 변화를 보일 때 각 형제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은 일관성이 적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인지적 능력 등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였다. 이를 볼 때 형제간 연령차가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을 가져오는 것은 형제 간 발달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제 성 구성과 형제간 연령차는 출생 순위의 효과와 상호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출생 순위(만이, 둘째)에 따라 두 집단으로, 형제 성별(남, 여)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연령차를 상(5년 이상), 중(3년 이상 4년 미만), 하(2년 이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세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에서 발생

하는 상호작용과 자아분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Bowen(1986: 남상철, 2004 재인용)은 부모-자녀관계가 친숙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미약한 경우 자녀의 정서적 단절도가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율성이 부족하여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육태도가 자아분화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Pable, 1965; Shapiro, 1967). 또한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이 구속적이고 강제적일 경우 자아의 발달을 지연시키고 역기능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Hausser, 1984; Bauser et al, 1986)도 있다.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조사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분화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와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김순재, 1996; 유혜경, 2004).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지만 불안, 타인과의 친화(affiliation), 공생적 의존(symbiotic dependence) 등 자아분화와 관련된 변인들을 출생 순위와 함께 조사한 연구들을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Olver 등(1989)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장녀들은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모의 관여와 침입 정도를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또한 맏이와 막내는 스스로를 친족과 관련지어 묘사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모를 지목하는 빈도가 중간 출생자들에 비해 높았다(Salmon & Daly, 1998). 맏이들은 타인들과의 친화를 통해 불안이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Wrightsmen, 1959; Staples & Walters, 1961에서 재인용) 이후 출생자들보다 사회적 압력에 더 민감하고 특히 장녀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더 강하게 끌렸다는 연구결과(Warren, 1966; Zucker et al. 1968)도 있다. 또한 동생과의 연령 차이가 3살 미만인 맏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친화와 공생적 의존성을 나타냈다(Cornoldi & Fattori, 1976).

반면 둘째가 맏이나 외동보다 타인에 대한 친화 욕구가 더 높지만 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가장 적게 하였다는 연구결과(Murdoch & Smith, 1969)도 있다. 이 결과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의 맏이나 외동처럼 타인과 특별한 친밀감의 경험을 갖는 것보다는, 초기에 친밀한 경험이 박탈되는 것이 친화욕구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Gate 등(1988)은 맏이가 가장 낮은 특성불안과 가장 높은 자아개념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불안이 낮은 자아분화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권미애 등, 2005; 배미예, 2008)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맏이의 자아분화가 이후 출생자들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에 관한 연구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인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생 순위는 형제 성별 또는 연령차와 상호작용하여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출생순위가 그 자체로 자아분화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자아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녀들이 가장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이고 불안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더 강하게 이끌렸다는 연구결과(Olver et al., 1989; Warren, 1966; Zucker et al. 1968)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은 출생 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가?
3. 자아분화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가?
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여대생의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여대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 614명이며, 이중 출생 순위가 외동이거나 셋째 이후로 태어난 학생들과 응답이 불성실했던 학생들 71명을 제외한 나머지 543명(88.44%)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형제 지위에 관한 질문과 자아분화 척도,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출생 순위가 막이와 둘째인 학생들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아분화 척도

여대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owen(1982)의 총 8가지 개념 중에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가지를 추출하여 제작되었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아주 그렇다’의 4점까지로 평정한다. 각 하위 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 변인 중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은 역채점하므로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전체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지각된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Parker(1979)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지(PBI; Parental Bonding Inventory)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하고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경주, 오경자

(2002)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PBI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애정-거부 차원의 점수가 큰 경우는 부모가 자신을 애정적으로 대하며 돌보는 것으로 인지함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자율-통제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이며 많이 관여한다고 인식함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어머니 애정과 통제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애정의 Cronbach's α 계수는 .85, 어머니 통제의 Cronbach's α 계수는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출생 순위에 따라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애정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둘째,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출생 순위를 첫째, 둘째로 구분하고 형제 성별을 남, 여로, 형제간 연령차를 5세 이상,

2-4세, 1세 이하로 구분하여 총 열두 개의 집단으로 삼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자아분화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동일한 집단으로 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출생 순위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 양육태도의 비교

학생들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맏이 집단과 둘째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맏이 집단의 자아분화 수준이 둘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78, p<.001$). 또한 맏이가 둘째보

표 1. 출생 순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검증

측정변인	맏이	둘째	t
	(N=313)	(N=230)	
	평균(S)	평균(S)	
자아분화	3.05(.30)	2.87(.40)	5.78***
애정적 양육태도	3.26(.44)	3.17(.46)	2.31*
통제적 양육태도	1.91(.47)	2.17(.51)	-6.00***

* $p<.05$ *** $p<.001$

다 어머니를 유의하게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t=2.31, p<.05$), 둘째는 맏이보다 어머니를 유의하게 더 통제적이라고 지각하였다($t=-6.00, p<.001$).

지각된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출생 순위, 형제 성별, 형제 연령차가 지각된 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애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친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3). 출생 순위는 맏이, 둘째의 두 집단으로, 형제 성별은 남, 여 두 집단으로 각각 나누고, 연령차는 상(5년 이상), 중(2년 이상 4년 이하), 하(1년 이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 형제 성별, 형제 연령차의 삼원분산분석

형제지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해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 간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2,422)=5.81, p<.01$).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는 각각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표 2).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형제 연령차의 세 집단에서 각각 단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제 연령차가 5세 이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지각함에 있어 출생 순위의 효과가 유의하였고($F(1,75)=9.34, p<.01$) 그 이하의 연령차를 가진 경우에는 출

표 2.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 형제 성별, 연령차의 분산분석

분산원	df	MSE	F
출생 순위(A)	1	.08	.44
형제 성별(B)	1	.01	.06
연령차(C)	2	.18	.95
A * B	1	.00	.02
A * C	2	1.11	5.81**
B * C	2	.13	.69
A * B * C	2	.24	1.24
오차	422	.19	
전체	433		

** $p<.01$

생 순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형제와 나이차가 5세 이상일 때 둘째가 맏이보다 어머니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맏이와 둘째 집단에서 각각 단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맏이의 경우에만 형제와의 연령차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다르게 지각하였고($F(2,249)=5.63, p<.01$) 둘째에게서는 연령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 맏이이면서 동생과의 연령차가 5세 이상일 때와 연령차가 그 이하일 때 간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맏이의 경우 동생과 나이차가 5세 이상일 때 그 이하의 나이차를 가진 경우에 비해 어머니를 덜 애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 형제 성별, 형제 연령차의 삼원분산분석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삼원분산분석 결과, 출생 순위의 주효과와 출생 순위, 형제성별,

표 3.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 형제 성별, 연령차의 분산분석

분산원	df	MSE	F
출생 순위(A)	1	1.46	6.43*
형제 성별(B)	1	.18	.78
연령차(C)	2	.88	3.88
A * B	1	.13	.58
A * C	2	.20	.88
B * C	2	.27	1.16
A * B * C	2	.79	3.46*
오차	422	.23	
전체	433		

* $p < .05$

형제 연령차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의 주효과가 나타나($F(1, 422)=6.43, p < .05$) 둘째가 맏이에 비해 어머니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제 성별과 형제간 연령차는 주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출생 순위와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22)=3.46, p < .05$).

출생 순위(A), 형제 성별(B) 및 형제 연령차(C)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상호작용효과와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둘째의 경우 형제의 성별과 연령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F(5,176)=3.95, p < .05$).

단순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둘째이면서 형제와 연령차가 2-4세인 집단에서만 형제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29)=9.39, p < .05$). 즉 둘째의 경우 순위 형제와 연령차가 1세에서 5세 사이일 때 오빠보다는 언니가 있을 경우 어머니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이면서 동성형제와 이성형제를 가진 집단에서 각각 터울에 따라 통제적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느 집단에서도 연령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는 형제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터울에 따라 어머니를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자아분화에 대한 출생 순위, 형제 성별, 형제 연령차의 삼원분산분석

형제지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자아분화에 대해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 간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2,422)=5.38, p < .01$).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는 각각 주효과

표 4. 자아분화에 대한 출생 순위, 형제 성별, 연령차의 분산분석

분산원	df	MSE	F
출생 순위(A)	1	1.12	1.19
형제 성별(B)	1	.02	.22
연령차(C)	2	.06	.57
A * B	1	.03	.29
A * C	2	.54	5.38**
B * C	2	.09	.93
A * B * C	2	.90	.91
오차	422	.10	
전체	433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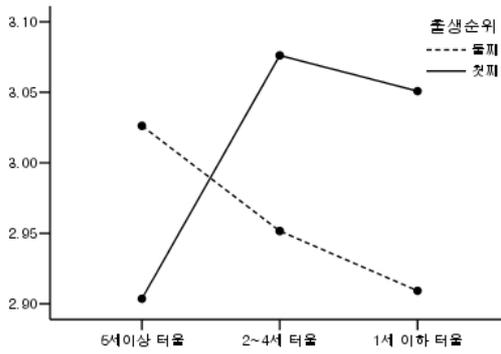


그림 1. 자아분화에 대한 출생순위와 형제 연령차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아분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표 4).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형제 연령차의 세 집단에서 각각 단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제 연령차가 1세 이하인 경우와 2세에서 4세 사이인 경우 자아분화에 대한 출생 순위의 효과가 유의하였고($F(1,188)=7.95, p<.01$; $F(1,165)=5.08, p<.05$), 5세 이상의 연령차를 가진 경우에는 출생 순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형제와 나이차가 4세 이하일 때 첫째가 둘째보다 높은 자아분화를 보였다. 맏이와 둘째 집단에서 각각 단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맏이의 경우에만 형제와의 연령차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이 다르게 나타

났고($F(2,249)=5.62, p<.01$) 둘째에게서는 연령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 맏이면서 동생과의 연령차가 5세 이상인 경우와 연령차가 2세에서 4세 사이인 경우 간에 자아분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맏이는 동생과 2세에서 4세 사이의 연령차를 가질 때, 동생과 5세 이상의 연령차를 갖는 경우에 비해 자아분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통제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형제지위 변인들 중 출생 순위는 앞의 결과에서 자아분화와 지각된 어머니 양육태도에 효과를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생 순위만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예측변인은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예측 변인은 성과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 변인은 성과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해

표 5.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매개하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단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β	t	R^2	F	df, df_2	VIF
I	통제적 양육태도	출생 순위	.15**	3.17	.02	10.02**	1, 434	-
II	자아분화	출생 순위	-.13**	-2.63	.02	6.90**	1, 434	-
III	자아분화	출생 순위	-.05	-1.18	.30	78.19***	2, 434	1.02
		통제적 양육태도	-.51***	-12.13				

** $p<.01$ *** $p<.001$

야 하며, 이때 성과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성과변인에 대한 예측변수의 회귀계수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한다. 만일 세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이 성과변인을 더 이상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매개변인이 예측변인과 성과변인을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변인의 성과변인에 대한 회귀계수는 줄어들었지만 성과변인을 여전히 유의하게 설명한다면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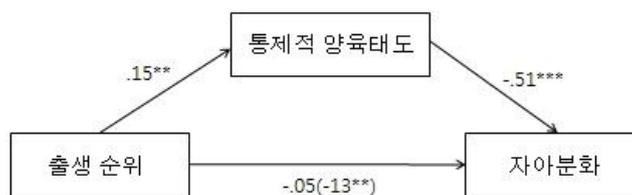
I 단계로 예측변인인 출생 순위가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의 β 계수가 $-.00$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애정적 양육태도는 출생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예측변인인 출생 순위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출생 순위의 β 계수가 $.15(p<.01)$ 으로 나타나, 둘째 일수록 모가 더 통제적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출생 순위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

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34)=10.02, p<.01$).

II 단계로 출생 순위가 성과변인인 자아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아분화에 대한 출생 순위의 β 계수가 $-.13(p<.01)$ 로 나타났다. 즉 만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으며, 출생 순위는 자아분화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34)=6.90, p<.01$).

III 단계로 예측변인인 출생 순위와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회귀식에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분화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의 β 계수가 $-.51 (p<.001)$ 였으며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모델은 자아분화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34)=78.19, p< .001$). 또한 통제적 양육태도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출생 순위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eta=-.05$; Sobel statistic $=-3.17, p<.01$). 따라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즉 출생 순위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을 거쳐 자아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회귀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VIF는 1.02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 () 안의 β 계수는 출생 순위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직접 효과이며, 그 앞에 표시된 β 계수는 출생 순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나타난 효과임.

** $p<.01$ *** $p<.001$.

그림 2.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를 매개하는 통제적 양육태도 검증 모형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형제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여대생의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맏이가 둘째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부모가 둘째보다 맏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유안진, 1983; 고애자, 1988; 서명화, 1994; 변지원, 1999; 조정자, 2000; Maccoby, 1980; Sulloway, 1996)와 일치한다.

지각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 역시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둘째는 맏이보다 어머니의 통제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가 일반적으로 맏이에게 더 성취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순희, 2000; 기현주, 2004; Rothbart, 1971, Maccoby, 1980)와 맏이가 둘째보다 어머니의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는 결과(상미현, 1998; 최하나, 2011)와 상반된다.

여대생의 자아분화에서도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맏이가 둘째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다. 이는 맏이가 시간적, 환경적으로 부모의 미숙함에 가장 많이 노출되며 자주 투사의 대상이 되어 부모와의 삼각관계 내에서 불안을 해소시키는 대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자아분화 수준이 떨어진다는 정보영(2010)의 견해와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 본 연구결과는 장녀가 차녀나 외동딸보다 높

은 심리적 안정성을 나타냈다는 연구(연진영, 1972), 둘째가 맏이나 외동보다 타인에 대한 친화 욕구가 더 높았으며(Connors, 1963), 맏이가 가장 낮은 특성불안과 가장 높은 자아개념을 보였다는 연구(Gate et al., 1988)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간 연령차가 5세 이상인 경우에만 둘째가 맏이보다 어머니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연령차가 1년 미만이거나 5년 이상일 때 아동은 부모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그 사이의 연령차는 보다 부정적인 지각을 유발하였다는 선행연구(Kidwell, 1981)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Kidwell (1981)은 남-남 형제로 이루어진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남-여, 여-여 형제 표본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효과가 개입되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맏이의 경우 동생과 나이차가 5세 이상일 때 그 이하의 나이차를 가진 경우에 비해 어머니를 덜 애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나이가 들어 얻은 자녀에게 더 온정적이고 격려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이민자, 2008), 이 경우 맏이는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을 낮게 지각할 수 있다.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출생 순위의 주효과와 출생 순위, 형제성별, 형제 연령차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둘째가 어머니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둘째의 경우 순위 형제와 연령차가 1세에서 5세

사이일 때 오빠보다는 언니가 있을 경우 어머니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 형제와의 연령차가 1세 이하이거나 5세 이상일 때는 형제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많이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자녀에 대한 관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통제적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Rohner & Pettengil, 1985). 형제간 연령차가 1세에서 5세 사이일 때 오빠가 있는 여동생이 언니가 있는 여동생에 비해 어머니를 덜 통제적이라고 지각했다는 결과를, 여동생이 있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를 가장 높게 지각했다는 상미현(1998)의 연구결과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자와 남아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분위기에서 첫째 아들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높기 때문에 여동생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관심을 덜 받는 위치에 놓인다. 한편 Salloway(1996)가 형제간 연령차가 5세 이상일 때, 맏이와 둘째는 모두 전형적인 맏이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형제간 연령차가 5세 이상인 경우 오빠를 가진 둘째도 맏이와 같이 인식되면서 어머니의 관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형제간 연령차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두 형제들이 매우 유사한 필요를 갖기 때문에 부모가 두 형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는 Kidwell(1981)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남자 대학생의 자료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형제간 연령차가 형제간 발달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Dunn & Plomin, 1986), 형제간의 연령차가 클수록 서로의 발달

수준이 더욱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수준 차이로 인해 맏이와 둘째가 모두 여아일 때는 어머니가 발달수준이 낮은 둘째를 상대적으로 더 통제하고 보호하려 하여, 둘째는 어머니를 더 간섭적이고 과잉보호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빠를 둔 둘째의 경우,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더 활동적인 남아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므로 발달수준 차이의 효과가 희석되어 연령차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여동생이 어머니의 통제를 낮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둘째, 자아분화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출생 순위와 형제 연령차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아분화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 연령차가 1세 이하인 경우와 2세에서 4세 사이인 경우에만 맏이가 둘째보다 높은 자아분화를 보였다. 이는 Kidwell(1981)이 주장한 바, 형제간 연령차가 5세 이상일 경우 각 형제들로부터 유사한 요구가 감소함으로써 부모의 주의와 자원을 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맏이는 동생과의 연령차가 2세에서 4세 사이일 때, 동생과의 연령차가 5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자아분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맏이는 동생과 나이차가 5세 이상일 때 그 이하의 나이차를 가진 경우에 비해 어머니를 덜 애정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렇게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아분화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분산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분화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순재, 1996; 유혜경, 2004)와 관련지

어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지각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출생순위와 자아분화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일수록, 어머니를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였으며 출생 순위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을 거쳐 자아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둘째일수록 자아분화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둘째가 어머니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만이를 더 통제하고 간섭한다는 연구결과(김순희, 2000; 기현주, 2004; Rothbart, 1971, Maccoby, 1980)들과 상반되지만,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의 부적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김순재, 1996; 유혜경, 2004)과는 일치한다. 과거의 출생 순위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어머니가 만이에게 더 통제적이고 간섭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만이가 둘째에 비해 어머니의 통제를 덜 지각하였다는 본 연구결과는 출생 순위와 양육태도에 대한 기존의 틀이 앞으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즘은 한 국가의 부모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노후 계획 등을 위해 한두 명의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 첫 번째 아이인 만이는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만이는 어머니의 애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통제는 덜 지각하는 등 자아분화 발달에 관련된 양육 상의 혜택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여자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대상자들 중 대부분의 학생의 부모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으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계층에 따라 상이하다는 연구결과(Maccoby, 1980; Zussman, 1978)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을 표집하여 본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이와 둘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동이나 셋째 이후 출생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의 출산율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외동 집단을 포함시켜 형제 집단과 비교한다면 현실적으로 더욱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와 셋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둘째를 구분하지 않고 한 집단으로 다루었다. 선행 연구에서 종종 둘째와 중간 자녀의 특성을 차이 있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때(Salmon & Daly, 1998), 이들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형제구조 변인 중 자녀의 성별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수 없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행동과 통제적 차별행동에 대한 출생순위의 효과는 자매보다 남아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는 연구결과(상미현, 1998)를 고려하면, 남자 대학생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결과를 확장시키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형제지위 변인들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터울을 수평 축에 두고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났으므로, 터울에 따라 양육태도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추세분석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사례수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추세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사후분석에서 터울 집단을 들쭉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여 터울에 따른 양육태도의 변화 경향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 유의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측정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형제지위 변인들의 상호작용하여 부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미치는지,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애정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 각각이 출생 순위, 자아분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chaefer, 1958) 각 차원의 수준에 따라 양육태도를 애정-자율적 태도, 애정-통제적 태도, 거부-자율적 태도와 거부-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여 출생 순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형제지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아직은 형제나 자매를 가진 연령대의 표본을 선택하여 형제지위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출생순위와 양육환경이 자아분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양육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애자 (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1), 31-48.
- 기현주 (2004). 한국유아교육 현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구두 발표; 학위 논문 및 연구 논문: 어머니의 형제대우와 형제 상호작용의 관계. 2004 정기총회 및 정기 학술대회, 283-296.
-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상철 (2004).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변지원 (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미예 (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상미현, 김지신, 도현심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1), 115-124.
- 서명화 (1994). 어머니의 자녀양육방법과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 특성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진영 (1972). 출생 순위와 인성특성, 지능,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 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경 (2004).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자녀간의 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희진, 민혜영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77-297.
- 장재홍, 김현주, 이호준, 김태성 (2000). 가족상담 연구개발 IV: 청소년기 가족문제와 가족상담의 방향.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155.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보영 (2010). 한국 가정의 만이문제와 치유에 관한 연구: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자 (2000). 유아의 출생환경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취도의 차이.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하나 (2011). 모-자녀간 정서적 친밀감과 형제관계에 대한 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ramovitch, R., Pepler, D., & Corter, C. (1982). Patterson of sibling interaction among preschool-age children. In M. E. Lamb &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 span* (pp.61-86). Hillsdale, NJ: Erlbaum.
- Bloom, M. V. (1980). *Adolescent 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ordner Press.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pp.42-90.
- Bowen, M. D.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ardner-Press.
- Bowen, M. D. (1985).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ent practice*. Northvale, New Jersey, London: Jason Aronson.
- Breland, H. M. (1974). Birth order, family configuration, and verbal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45, 1011-1019.
- Brody, G. H., Stoneman, Z., Burke, M. (1987). Child temperaments,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54-362.
- Bryant, B. K., & Crockenberg, S.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s: A study of female siblings and

-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onnors, C. K. (1963). Birth order and needs for affil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1(3), 408-416.
- Cornoldi, C., & Fattori, L. C. (1976). Age spacing in firstborns and symbiotic 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4), 431-434.
- Cortner, C. Pepler, D. J., & Abramovitch, R. (1983). Effects of situation and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4, 380-392.
- Dunn, J. F., & Kendrick, C. (1981). Social behavior of young siblings in the family context: Differences between same-sex and different-sex dyads. *Child Development*, 52, 1265-1273.
- Dunn, J. F., & Plomin, R. (1986). Determinants of maternal behavior towards 3-year-old sibling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 127-137.
- Gates, L., Lineberger, M. R., Crockett, J., & Hubbard, J. (1988). Birth order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xiety, and self-concept test scores in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Research and Theory on Human Development*, 149(1), 29-34.
- Jacobs, B. S., & Moss, H. A. (1976). Birth order and sex of sibling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47, 315-322.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Kidwell, J. S. (1981). Number of siblings, sibling spacing, sex and birth order: the effects on perceive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15-332.
- Kluger, J. (2011). Playing favorites. *Time*, 178(13): 44-8, 50.
- Lewis, M., & Kreitzburg, V. S. (1979). Effects of Birth order and Spacing on M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17-625.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 Murdoch, P. H. J., & Smith, G. F. (1969). Birth order and affili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3), 235-245.
- Newman, J. (1994). Conflict and friendship in sibling relationships: A review. *Child Study Journal*, 24(2), 119-134.
- Olver, R. R., Aries, E., & Bargos, J. (1989). Self-other differentiation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The effects of sex and birth orde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Research and Theory on Human Development*, 150(3), 311-322.
- Rothbart, M. K. (1971). Birth order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an achievement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2), 113-120.
- Rothbart, M. K., & Maccoby, E. E. (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237-243.

- Salmon, Catherine A.; Daly, Martin (1998). Birth order and familial sentiment: Middleborns are different.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19(5), 299-312.
- Schooler, C. (1972). Birth order effects: Not here, not now! *Psychological Bulletin*, 78, 161-175.
- Staples, F. R., & Walters, R. H. (1961). Anxiety, birth order, and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3), 716-719.
- Sulloway, F. J. (1996). *Born to rebel: Birth order, family dynamics and creative lives*. New York: Parthenon.
- Walsh (1993). *Conceptualization of normal family process: Normal Family process(2nd)*. NY: Guilford.
- Warren, J. R. (1966). Birth order and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65(1), 38-49.
- Zucker, R. A., Manosevits, M., & Lanyon, R. I. (1968). Birth order, anxiety, and affiliation during a cri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Pt.1), 354-359.
- Zussman, J. U. (1978).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6), 685-686.
- 1 차원고접수 : 2012. 2. 03.
심사통과접수 : 2012. 3. 13.
최종원고접수 : 2012. 3. 17.

The Relationships Among Birth Order,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of Female College Students

Ye Eun Moon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sibling status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2) sibling status effects o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3)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order and differentiation of self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543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significant birth order difference in perceived mother's love, perceived mother's control, and differentiation of self. Firstborns perceived their mother more loving, and less controlling than second-born students, and firstborns showed higher degree of differentiation of self. Second, as a result of 3-way ANOVA, Second-born students perceived their mother more loving than first-born students when the age spacing was more than five years. Also, Second-borns generally reported higher control of their mother, and when the age spacing was between 1 and 5 years, second-borns having older sister perceived their mother more controlling than second-borns having older brother. When the age spacing was less than 1 year or between 1 and 5 years, firstborns showed higher degree of differentiation of self than second-borns. Third, perceived mother's control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order and differentiation of self. Being second-born and reporting mother's higher control predicted lower differentiation of self, and birth order had an indirect effect on differentiation of self through the perception of mother's control.

Key words : birth order, sibling status, parenting attitude, differentiation of self, mediating effect